

육지면 발상지 고하도 관광지 개발 본격화

〈개량 문화특종〉

근대문화유산 DB 구축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 추진

해상케이블카 연계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 기대

목포시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 육지면(陸地棉·목화) 발상지인 고하도 관광지 개발(광주일보 2015년 8월 18일자 보도)과 원도심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 DB(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맞물려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객 유인,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이들 사업을 정부 공모사업 유치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고하도! 목화 육지면의 발상지를 가다(관광과)’와 ‘목포 근대문화유산 콘텐츠 창조사업(문화

예술과)’ 등 2개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8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과제 발굴과 관련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컨설팅까지 받아 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지역사업은 문화, 역사, 자연·관광 자원 등 지역이 보유한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3년이며 최고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고하도 육지면 발상지를 가다’ 사업은 국내 최초 육지면 발상지인 고하도의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목화 전문단지와 목화 테마 길을 조성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목화를 이용한 체험학습을 비롯한 유기농 육아용품·이불·공예품·엑세서리 등

을 제작·판매해 지역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들 사업에 지역주민 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해 주민 역량강화는 물론 청장년 일자리 창출 등 자주적 창조경제 주체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또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510억원)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조성사업(50억원) 등과 연계한다면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로 극대화될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필요 사업비는 총 5억1600만원이다.

‘근대문화유산 콘텐츠 창조사업’은 지난 1897년 국내 4번째로 개항한 근대 도시라는 역사성에도 근대 형성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한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원도심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자주적 근대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보존 정책 수립이 절실하

다는 게 목포시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선장과 유달산 인접지역에 산재한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경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포 근대역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고 이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포·판매해 제 2의 수익구조를 창출한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또 현재 목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 지역 재생활성화 사업, 선창권 활성화 사업,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 마을 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유달산과 선창 인근 4개동 1만3393가구로 면적은 16㎢다.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 4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문옥 목포시 관광경제국장은 “수차례에 걸친 창조지역사업 과제 발굴 회의와 자문단 컨설팅을 거쳐 2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



19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을 재배해 전국에 보급한 목포시 고하도내에 지난 1936년 세워진 ‘조선육지면발상지(朝鮮陸地綿發祥之地)’ 기념비.

다”면서 “목포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첨단 교통선진도시 구축 사업 탄력

전액 국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 쾌거

목포시 30억원 확보

목포시의 대형 프로젝트인 ‘첨단 교통선진도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경찰청 주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을 확보 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9개 도시가 응모해 지난 6일 경찰청 지능형교통체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목포를 비롯한 화성·평택·군산·청주·원주·제주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

목포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30억을 지원 받아 도심부 첨단교통관리와 방법·재난관리를 위한 교통관제센터, CCTV 22대, 자가 통신망 15km, 소방 긴급차량 출동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은 물론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으로 도심 내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돼 서남권 중핵도시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비확보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박홍을 목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경찰청의 사업계획을 사전 분석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2014년에도 경찰청 주관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UTIS) 공모사업에도 전남권에서는 목포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67억 원을 전액 지원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첨단 교통 인프라인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으로, 택시·순찰차 등 차량 및 노면기지국간 통신장치가 실시간 교신해 차량 위치와 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교통, 돌발 상황, 기상 등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박경연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첨단 교통선진도시 구축사업은 서남해 안시대를 선도할 중추도시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선진화와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평화광장 산책로에 애기동백이 식재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녹지 리모델링...산뜻해진 ‘푸른 목포’

사색의 숲·애기동백 등

시민·관광객들에 인기

목포시가 ‘도시 숲 조성’과 ‘녹지 공간 리모델링’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시가지마다 꽃물결이 넘쳐나는 등 도시 이미지 향상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홍을 목포시장이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살고 싶은 푸른 목포 만들기’의 가지적 성과로 시민들의 호응도 높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공원녹지과는 지난 3월부터 40여일동안 주요 시가지 교통섬 13개소와 가로화단 6개소 등 26개소에

팬지·비올라·금잔화 등 14종 40만본을 심었다.

또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하당 평화광장 산책로 1.2km에 애기동백 130여주를 식재하고, 옥암 수변공원 내 0.9km에 이르는 메타세쿼이아 사색의 숲과 하당 삼향천 주변 600㎡에 경관 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평화광장에 식재된 애기동백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시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대교에 이르는 고하대로 일대 가로등에 난간결이 화분 100여개를 설치하고, 중앙선에 대형

화분 50여개를 놓아 이곳을 거쳐 해남·진도 등지로 가는 외지인들에게 산뜻한 목포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북항 화타운 입구도 교통안전지대에 설치돼 있던 중앙분리봉을 제거하고, 3단 대형 미관화분 40개를 설치해 불법 유턴 방지와 함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포시 공원녹지과는 앞으로 한달동안 ▲유달 유원지 입구 해양대 주변 썬미공원 조성 ▲옥암천 주변 옥암 어울림 숲 조성 ▲국도 2호선 녹색로 가로변 띠 녹지 조성 ▲용당아파트 옆 경관녹지 조성 ▲연산 농공단지 옆 경관녹지 조성 등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치매예방 전문센터

전남지역서 첫 개소

‘실버건강학교’ 본격 운영

목포에 전남 최초로 노인 치매예방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버 건강 학교가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치매예방협회 부설 비영리 민간단체로, 치매예방 전문 지도강사를 육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치매를 케어관리해주는 센터다.

이 센터는 기존 노래·율동 중심의 치매예방 시스템과는 달리 놀이기구 16종을 비롯해 인지과정검기과정 등 20여종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지도강사는 총 48~6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건복지부 배우처 사업제공 인력으로 노인복지관·노인대학·요양원 등지에 파견돼 활동하게 된다.

허정민 센터장(전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어르신들에게 암 보다 무서운 병이 바로 치매로, 치매는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치매환자만 4만 5000명에 달하지만 전문 센터가 전무해 앞으로 일선 시·군에 전문센터들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춤사위 따라 ‘은빛 향해’

시립무용단 15일 정기공연

“뱃꼴 휘날리는 봄, 화려한 춤사위를 따라 은빛 향해를 떠나보자”

제3회 목포시립무용단(상임안무자 박수경) 정기공연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은빛 향해’로 명명된 이번 공연은 목포시와 중국 허난성 사범대학 DTM Dance Company와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는 한·중 교류 공연이다.

특히 목포를 대표하는 전통춤·국악·대중예술과 중국의 전통무용·무술·경극 등이 목포시립무용단에 의해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지역 예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예약의 도시 목포를 알리고 지역민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고품격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27~42세 공무원(5급~9급) 28~47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男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술선 여성 희망 33~48세 女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	---

변지유 패션

신사옥이전 기념세일

4월 5일 ~ 4월 30일까지

50% ~ 80% 신상품 30%

Tel. 062,222.720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5-1

BYUNG U